

# 화재피해주민 지원 새로운 지평 열다

### 두세훈 도의원 발의 '임시거처 비용 지원 조례안'

### 1년 성과로 재난심리회복 92건·거처비용 5건 지원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큰 기대만큼 많은 성과를 내며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서 화재피해 도민에게 임시거처 비용을 총 5건 지원했고, 이로 인해 우리의 이웃 17명에게 임시보급자리를 제공하면서 화재피해 이재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

또, 현재 전북 순창군에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로 지어 주는 행복하우스가 9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소방사에서 심리회복센터에 의뢰해 총 92건의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하면서 재난경험자들의 심리회복에 큰 도움을 주며 빠른 일상복귀에 기여했다.

더불어,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대한 기쁨을 마련한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의회와 울산광역시의회 등 타 시·도 조례제정에 영향을 미쳤고 국회에서는 오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해 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추진 중에 있다.

두세훈 의원은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정적 재기를 위해 제정한 조례가 1년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 기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의 도민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지난해 두세훈 의원은 "화재피해 주민사업이 주로 주택복구비 지원으로 한정됐으나, 화재피해주택 복구과정에서 화재피해주민이 겪을 수 있는 위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지원 근거가 없었다"며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할 소방서장이 추천한 주민에 대한 행복하우스 건설 지원, 화재피해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주민에 대한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가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전북 창업대전 민간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 자생적 창업문화 조성 시작 알렸다

### 전북 창업대전 민간조직위 결성... 군산대서 10월 14일 창업대전

전북도가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21년 전북 창업대전 민간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자생적 창업문화를 조성하고, 선배기업과 스타트업이 교류하는 창업대전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조직위원회를 구성, 그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민간조직위원회는 '전북창업지원기관협의회'에서 추천받았다. 이에 비너텍(주) 성도경 대표 (주)엔 시팅 김종직 대표, 군산특수 김영준 대표, 구선순환 흥은찬 대표, 디딤스토리 이동원 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민간위원들은 창업대전을 함께 준비하며, 도내 창업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도모와 투자 프로그램 심사 성과사례 발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 위원장 선출에 이어 간담회를 진행, 창업대전 행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민간조직위원회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창업대전'은 전북도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이 지난 2016년부터 도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최하는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축제다. 매년 도내 창업 유관기관이 창업주간을 선포하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특히, 올해 6회를 맞아 창업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표 선배기업과 스타트업이 교류하며, 기술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전북 창업대전은 군산대학교에서 주관해 오는 10월 14일 메타버스 방식을 적용,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창업주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 기간동안 도내 유관기관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민간위원들과 함께 준비하는 이번 창업대전이 도내 창업문화 확산에 이정표를 남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북도 창업대전을 널리 홍보해 기업과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코로나19 검사 대기자 배려를"

### 최영심 도의원, 맹별 아래 도민 세워주기 문제 지적 "가림막 설치 확대돼야"

"연일 확진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기 위해 선제검사까지 권고하고 있지만, 정작 검사장에서는 대기 시스템이 없어 도민들이 맹별 아래서 무작정 순서를 기다리며, 거리두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5인 이상 집합할 수 없는 요즘같은 시기에 한 보건소 근처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 눈길을 끌었다"며 "거리두기 쫓겨가는 고사하고, 대기자를 위한 가림막 하나 없는 그 무리가 코로나 검사를 위한 대기 줄일 거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보건소 앞, 뽕비는 인파의 원인이 궁금해 한 도민에게 여쭙본 후에야 알 수 있었다"며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검사터 와서 코로나 감염이 되거나 더위에 지칠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영심 의원은 "장마와 무더위가 있는 여름민의 문제가 아니다"며 "도민들이 빠르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대기 번호 발급하는 시스템과 대기자를 위한 가림막 설치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이명연 위원장은 "K방역의 성공은 온전히 일선 현장의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땀방울과 헌신 자원 봉사에 기대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

## "코로나19 위기 상황 의료 총파업 중단하라"

### 이명연 도의원, "정부,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23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국민 생명 위협하는 총파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이 오는 9월 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보건 의료노조의 파업행위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그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수단인 파업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기에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건 의료 이용률은 OECD 국가 평균 6.8회보다 2.5배 정도 높은 17.2회였다.

하지만 임상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3.6명의 69%, 간호사수는 인구 1,000명 당 4.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7.9명의 53%에 불과해 현장에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현장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의 땀방울과 헌신에만 기대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처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워드 코로나에 대해 장기전을 대비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공의대설립을 포함, 공공의료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 보건의료노조와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보건의료노조 또한 총파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 이진 민생당 당대표 후보 호남 찾아 지역생생 방안 제시

민생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진 당대표 후보가 호남을 찾아 활발한 특약활동을 벌이고 있다. 호남은 이번 민생당 당대표 선거에서 당락을 결정짓는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남이 고향이고, 전북에서 학교를 다녔고,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했던 연고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우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이진 후보는 23일 광주에 마련한 변화의 시작 선거 캠프에서 공약발표회를 통해 "지금까지의 여의도 정치와는 결이 다른 정책을 펼쳐 보겠다"며 "발빠른 지역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후보는 "민생당의 당직자와 혁신과 미래연구원에 지역인재 50% 채용, 불행 하나부터 당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은 지역에서 구입하고, 지역업체와 계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약실천의 의지를 담아 서민창업경영지원단 김석수 정책실장과 물품구매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1인 2표제로 진행되고 만약 한명의 후보만 선택하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7명의 후보들이 서로의 약점을 채워줄 후보를 찾아 짝짓기에 나선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분석은 이진 후보가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누구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당일투표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보팅과 ARS로 진행되며,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당선자가 결정된다. /유호상 기자

## 국힘 "부동산 투기의혹 12명 명단 추후 발표"

23일 국민의힘 소속 12명 의원과 그 가족이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민의힘과 관련해 확인한 의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

건) 등이다.

조사가 발표된 직후 국민의힘 당대표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를 거쳐 내일이나 모레 중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